

# 민주 국회 상임위원장 8명 확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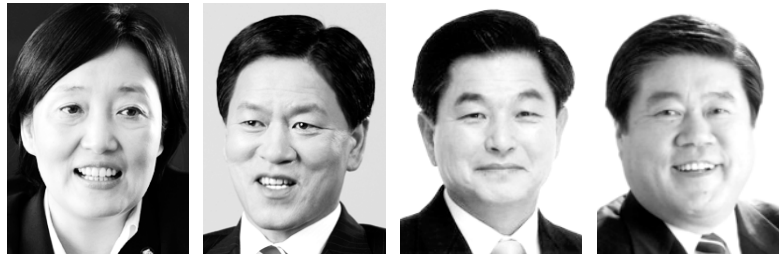
## 법사 박영선·교과 신학용 등...광주·전남선 국토 주승용 의원 유일

민주통합당은 5일 자당 뒤편으로 배정된 8명의 국회 상임위원장 인선과 소속 의원들의 상임위 배정을 완료했다.

이날 배정 결과, 광주·전남지역 의원으로는 주승용 의원이 유일하게 국토해양위원장으로 상임위원장 자리를 차지했으며 나머지 15명의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농림수산식품위, 국토해양위, 교육과학기술위, 지식경제위, 기재위, 법제사법위,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정무위, 외교통상통일위 등 9개 상임위에 각각 배치됐다.

이날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장에 박영선, 교육과학기술위원장에 신학용, 농림수산식품위원장에 최규성, 지식경제위원장에 강창일, 보건복지위원장에 오제세 의원을 각각 내정했다. 또 환경노동위원장에 신계륜, 국토해양위원장에 주승용, 여성가족위원장에 김상희 의원을 각각 인선했다. 민주당은 또 이날 소속 의원들에 대한 상임위원회 배치를 마무리 지었다.

광주·전남지역 의원으로는 농림수산식품위원장에 김영록(간사)·김승남·배기운·황주홍 의원 등 4명, 국토해양위에 주 의원을 비롯해 이윤석(간



법사-박영선 국토-주승용 교과-신학용 농림-최규성



지경-강창일 보건-오제세 한노-신계륜 여성-김상희

사)·임내현 의원 등 3명, 교육과학기술위에 박해자·이용섭 의원 등 2명, 지식경제위에 김동철·우윤근 의원 등 2명이 각각 배치됐다. 또 기재위에 이날엔, 법제사법위에 박지원,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에 장병완, 정무위에 강기정, 외교통상통일위에 김성곤 의원이 각각 이름을 올렸다. 이외에도 광주·전남 출신 비례대표 의원인 김광진·백근기 의원은 국방위원회에 배속됐다.

이 같은 상임위 배치 결과에 대해 지역정치권은 실물경제를 다루는 국토해양위와 지경위에 많은 의원이 배치된·황주홍 의원 등 4명, 국토해양위에 주 의원을 비롯해 이윤석(간

사)·농도이긴 하나 농식품위 소속 의원이 지나치게 많은 대신 행정안전위원회와 보건복지위, 환경노동위원회에는 단 한 명의 의원이 없어 아쉬움을 남겼다는 지적이다.

박기춘 원내수석 부대표는 "상임위 배정 기준으로 ▲12월 대선을 고려한 전략적 배정 ▲민주당 상임위원장이 있는 위원회와 없는 위원회에 대한 전략적 고려 ▲전문성 및 여성 할당 ▲당 소속 국회의원의 부재지역에 대한 지원 체계 ▲농어촌 등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 소속은 아니지만 광주·전남에 지역구를 둔 통합진보당 김선동·오병윤 의원, 무소속 박주선

### ■민주통합당 광주·전남 의원 상임위 배정현황

의원(지역구)	상임위
박해자(서구갑)	교육과학기술위·윤리특별위원회
장병완(남구)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강기정(북구갑)	정무위
임내현(북구을)	국토해양위
김동철(광산갑)	지식경제위
이용섭(광산을)	교육과학기술위
박지원(목포)	법제사법위원회·정보위원회·운영위원회
김성곤(여수갑)	외교통상통일위
주승용(여수을)	국토해양위원회
배기운(나주·회선)	농림수산식품위
우윤근(광안·구례)	지식경제위
이내현(담양·합천·영광·정선)	기획재정부
김승남(고흥·보성)	농림수산식품위
황주홍(장흥·강진·영암)	농림수산식품위
김영록(해남·원도·진도)	농림수산식품위
이윤석(무안·신안)	국토해양위
백근기(비례)	국방위원회
김광진(비례)	국방위원회

의원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이 아니어서 9일 국회의장단과 협의를 통해 최종으로 상임위 배치를 받을 예정이다.

김선동 의원은 법제사법위, 오병윤 의원은 국토해양위, 박주선 의원은 행정안전위를 1차로 1차로 선택해 국회·전남에 지역구를 둔 통합진보당 김선동·오병윤 의원, 무소속 박주선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김영환 의원 대선 출마 선언

### "국민의 화병 고쳐드리겠습니다"

민주통합당 김영환 의원이 5일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립과천과학관에서 대선 출마선언식을 갖고 "지금 국민은 살맛을 잃은 채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고 대한민국은 난바다 속에서 표류하고 있다"며 "올바른 터지는 세상, 국민의 화병을 고쳐드리겠습니다"고 밝혔다.

경기 안산 출신의 4선 의원인 그는

"본선에서 친노(친노무현) 프레임으로는 박근혜 후보와 대결해 절대 이길 수 없다"며 "아직은 뉴페이스인 제가 컷 오프를 통과, 결선에서 라이징 스타가 되어 최종후보가 되면 박근혜 후보를 이기는 정권교체의 주역이 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김 의원은 특히, "과학기술과 문화 예술, 생태환경의 통합과 융합을 이루는 '트리플 악셀론'을 앞세워 대한

민국을 업-그레이트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 공약으로는 ▲남한에 북한 평화공단 조성사업 ▲이공계출신 병역특례 전환 ▲중소기업부 신설 ▲교육부 폐지 및 과학기술부 부활 ▲의·과학계 인재 양성 등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정치개혁 과제와 관련해 "정·부통령 러닝메이트제를 포함한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추진함으로써 대통령의 국정운영의 책임성과 안정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출마선언 이후 국립현충원을 방문해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저녁이 있는 삶' 손학규 출판 기념회

민주통합당 손학규 상임고문은 5일 오후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저녁이 있는 삶-손학규의 민생경제론'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저녁이 있는 삶'은 손 고문이 이번 대선의 캐치프레이즈로 내건 용어로 최근 트위터를 비롯한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 공간에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손 고문은 이 책에서 근로시간 단

축과 일자리 창출을 핵심으로 진보적 자유주의와 공동체 시장경제, 경제민주화, 사람 중심의 복지, 진보적 성장 등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민주당 조정식 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서평은 장하성 고려대 교수가 맡았고 손 고문의 후원 회장인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와 박형규 목사, 이해찬 대표, 박병석 국회 부의장, 박원순 서울시장 등이 축사

를 했다.

이날 행사는 '음악이 있는 토크쇼'가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이 진행을 맡은 이 토크쇼는 '내가 본 손학규'라는 주제로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손 고문의 인간적인 면모를 다뤘다. 특히 경기고 재학 시절 밴드단 활동을 했던 손 고문은 이날 밴드단 선·후배와 7인조 금관악 협연에서 트럼펫 연주를 선보였다. 또 민중가요 1세대인 박용범(예명: 박지운) 순천대 교수가 출판 기념회에 맞춰 작사·작곡한 '저녁이 있는 삶'을 직접 노래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정가 라운지

#### 이용섭, '한국형 부지증세' 추진

민주통합당 이용섭 의원은 5일 최고 소득세를 적용 과세표준 구간을 현행 '3억원 초과에서 '1억 5000만원 초과'로 조정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의 주도로 소득세 최고 세율은 지난해 말 국회에서 35%에서 38%로 인상됐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최고세율 구간 과세대상자는 3만1000명(전체 소득자 0.16%)에서 13만9000명(0.73%)으로 네 배 이상 확대된다. 세수 증대 효과도 6359억원에서 1조1500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난다.

이용섭 의원은 "사회양극화에 따른 사회갈등을 해소하고 복지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선 1% 부자에 대한 증세가 필요하다"며 "제대로 된 부자증세를 통해 우리나라 부자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박해자,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안 발의

민주통합당 박해자 의원은 5일 기초노령연금 수령 대상자라면 누구나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한 '기초노령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연금수령 대상자가 신청을 안 하거나 못할 경우 담당 공무원이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직권신청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박해자 의원은 "일부 어르신들의 경우 자신이 연금 대상자인지도 모를 정도로 신청주의에 따른 피해가 많았는데, 법안이 통과되면 담당 공무원의 도움을 받게 되면서 이런 일은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 이완영 '중도사퇴 선출직에 선거비용'

세누리당 이완영 의원은 5일 임기 도중 사퇴하는 선출직에 재보궐선거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그동안 국회의원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날 경우 재보선 경비를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의 경우 해당 지자체가 각각 부담했던 것을 없애고 사퇴한 선출직이 선거 비용을 내도록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올해만 해도 4·11 재보선 비용으로 20억원이 들고, 최근 6년간 총 1300억원의 형세가 낭비됐다"며 "재정상황이 좋지 않은 지방에서 재보선 비용을 주민 세금으로 부담하는 것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 민주 "도청 연루, 한선교 문방위장 내정 철회하라"

민주통합당은 5일 한선교 의원에 대한 새누리당의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 내정 철회를 요구했다. 홍영표 정책위 수석부장은 이날 고위정책회의에서 "지난해 대한민국의 현정 사상 처음으로 야당 대표실을 도청해 국회에서 큰 문제가 됐고, 이에 연루된 직접 당사자가 한 의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당시 민주당 대표실에서 열린 지도부·문방위원 비공개회의 녹취록을 한 의원이 입수해 상임위에서 공식 발언했다"며 "새누리당이 이런 의원을 문방위원장에 내정한 것은 문방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않겠다

는 의사 표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현재 우리 당에서는 이번 국회에서 불법도청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불법도청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현 대변인은 "새누리당이 한 의원을 문방위원장으로 내정한 것은 19대 국회 문방위를 파행으로 이끌었다는 공개 선언이자 민주당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민주당은 한선교 문방위원장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당 언론정화특별위원회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불법도청 의혹

의 장본인을 문방위원장으로 앉혀 정상적인 상임위 운영을 방해하려는 것"이라며 "부적격자인 한선교 문방위원장을 내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

한편, 한 의원은 문방위 간사였던 지난해 6월 KBS 수신료 인상 문제를 다룬 민주당 비공개 최고위원회 녹취록을 입수해 도청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당시 민주당은 한 의원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혐의로 고발했으나 검찰은 지난해 12월 "도청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한 의원에 대한 기소를 포기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 '조용한 헌법재판관 카드'

#### 민주, 본인사양 결국 포기

민주통합당이 지난해 6월부터 무려 13개월 넘게 끌어온 '조용한 헌법재판관 카드'를 포기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5일 고위정책회의에서 "조 변호사를 만나 헌법재판관으로 재추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본인이 정중히 사양했다"며 다른 법조인을 재판관 후보로 물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작년 6월2일 조대현 재판관의 후임으로 조 변호사를 추천했지만 같은 달 28일 인사청문회에서 나온 천안한 관련 발언 때문에 안보관 논란에 휩싸였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전 남 영 암  
**하누리병원 경매물건**

- 사건번호 : 2010타경 19601(물건번호 1)
- 입찰장소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101호 법정
- 법원최초 법사가 : 9,518,275,000원
- 부동산위치 : 전남 영암군 신북면 갈곡리42-7외 1필지 (전남방직 입구대로변으로 접근성이 용이)
- 물건종별 : 의료시설
- 토지면적 : 9,517㎡
- 건물면적 : 7,305.36㎡(지하 1층, 지상 3층)

■ 입찰진행내용

구분	입찰기일	최저경매가격	결과
1차	2012. 04. 30	9,518,275,000원	유찰
2차	2012. 06. 11	6,662,793,000원	유찰
3차	2012. 07. 23	5,330,234,000원	

■ 2010년 신축건물 상대 매우 양호

문의 : 법무법인 21세기 종합법률사무소 강훈열 국장 H.P : 010-2498-0420

**경매투자**

- ▶ 실전경매 배우실 분
- ▶ 교육 / 활동비등 550만원
- ▶ 특수물건만 취급
- ▶ 배우면서 투자가능

**투자자 모집**

- ▶ 낙찰받은 경 / 공매 물건
- ▶ 근저당설정 / 가등기로 보장
- ▶ 년10~30% 수익률
- ▶ 기간 : 1년정도

주 | 오천경매  
투자 연구소  
OC & A Investment Institute  
H-P 010 3605 5000 TEL 062 525 5000  
광주광역시 동구 수기동 23-2번지  
E-mail : csg5000@hanmail.net

**부실채권**

친절히 상담해 드립니다.

- 각종공증문서 ■ 대여금
- 법원판결문 ■ 운송료
- 각종채권 ■ 구상금
- 물품대금 ■ 공사대금

- 채무자 전국 재산조사 가능
- 채무자 신용조사
- 법인재산조사, 신용조사
- 법원 재판중인 사건 확인

의뢰시 수수료없음  
(회수금에 대한 후불제도)  
필요에 따라 법비용은 채권자 부담

"타 신용정보사와 비교 탁월한 회수실적"  
"전국 지점으로 전국 소재 파악"  
"수시로 의뢰인에게 상황보고"

**미래신용정보(주)**  
전문상담 010-8617-7899